잡학서고 지식의 기록

소리가 앞서고 남는 편집, J 컷과 L 컷(J-Cut and L-Cut)

원문 주소

https://www.gklibrarykor.com/14107/

PDF 미리보기 ·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.

영화나 드라마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. 말하는 사람의 얼굴만 번갈아 나오면 대화가 공을 주고받는 경기처럼 딱딱하게 느껴지는데, 어떤 장면은 말이 이어지는 동안 듣는 사람의 표정이 슬며시 비칩니다. 그 자연스러움은 대개 편집에서 나옵니다. 비결은 화면이 바뀌는 순간과 소리가 바뀌는 순간을 일부러 어긋나게 두는 데 있습니다. 이런 편집을 스플릿 에디트(split edit)라고 하고,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두 가지가 J 컷(J-Cut)과 L 컷(L-Cut)입니다. 알파벳 이름이 붙은 까닭은 뒤에서 풀어 보겠습니다. 본 자료에서는 화면과 소리를 따로 자르는 원리부터 J 컷과 L 컷의 차이, 그리고 두 기법을 쓸 때 알아 둘 요령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. 화면과 소리의 시차로 장면을 잇는 법 화면과 소리를 따로 자르는 스플릿 에디트 영상 편집에서 컷은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 지점을 말합니다. 가장 단순한 컷은 화면과 소리가 같은 순간에 함께 바뀌지만, 스플릿 에디트는 두 가지를 다른 시점에 바꿉니다. 화면은 이미 다음 장면인데 앞 장면의 소리가 남아 있거나, 소리가 먼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있는 식입니다. 소리가